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날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은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이 부모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올바른 장애인식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다가오는 4월 20일은 ‘제 37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되돌아보며, 아이와 유치원의 다양한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장애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으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해야 하는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물론 매일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생활도 좋지만, 특히 이날만큼은 장애인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르게 되새겨 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차이가 좀 큰 사람에 대해 근거없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견은 결국 차별로 이어져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선을 그어 갈라 놓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나도 모르게 장애인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모두가 이유있는 삶.

이 세상에 필요없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유있는 삶. 이 세상에 필요없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과학상기. 10.10

서로 다르지만 함께하는 “우리”



꽃들이 만개하고 봄기운이 유치원과 아이들의 얼굴에도 가득한 요즘, 친구들과 반에서 즐겁게 유치원 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봄볕보다 더 환해 보입니다. 본 가정통신문은 본원에서 실시할 통합교육에 대한 안내와 함께 학부모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합교육이란 무엇인가요?

통합교육이란 장애를 가진 유아들과 그렇지 않은 유아들이 같은 환경에서 함께 어울려 배우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역시 자라서 살아갈 환경에 대한 요구도 일반 사람들과 같을 것입니다. 직장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길 원하죠. 이러한 바람의 시작이 바로 통합교육입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것도 환경이나 사람이 달라지면 쉽게 적응을 못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경우, 미래에 자랄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고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로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통합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장애를 가졌거나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이 느린 친구들'이 있다면 그만큼 반 아이들이 도울 일도 많고 배려해야 할 상황도 많겠지요. 이와 같이 통합교육을 통해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방법, 나와는 다른 모습과 특성을 가진 친구들의 개인적 차이를 수용하면서 자연스러운 친구관계를 형성하여 함께 어울려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래와 같이 지도해 주세요.

1.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놀리지 않고 배려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2. 특수유아란 말 대신 그 친구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 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4. 지나친 도움은 친구의 자립심을 약하게 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지켜봐 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5. 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바른 행동을 알려 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